

## 미·중·일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MD를 둘러싼 안전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차주호

숙명여대 일본학과 강사

미·중·일 간에 펼쳐지고 있는 MD정책공방은 역사적 맥락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미·중·일 관계는 20세기에 와서 여러 번 전략적 변천을 했으며 롤러 코스트처럼 변화하고 있다. 미·중 관계는 클린턴 정부 시대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부터 '전략적 경쟁자'시대로 변하고 있고 여기에 일본이 추종(bandwagoning)하는 형세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MD 추진의 명분으로 북한, 이란, 이라크, 중국 등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미국의 방위 산업에 예산을 보다 많이 분배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MD는 미국의 안전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방위계획이며, 우주마저 군사화 함으로써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은 MD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 한국, 대만을 무리하게 끌어넣으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일은 중국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이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동북아의 안전보장에 우려할 만한 일이다. 한편 한국으로서도 미국의 종용에 따라 '외교의 주체성' 없이 이 계획에 전면적으로 참가한다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의 관계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주제어: 미중일 삼각관계, MD정책, 미국 방위 산업, 미일동맹, 한국의 아이덴티티, 한국의 외교 주체성

### I. 서론-미중일 관계의 전략적 위험성

냉전 후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의 구조에 대해서는 미국에 의한 '일극 구조'(Wohlforth, 1999: 5-41)가 성립되었다는 견해로부터 일본과 중국의 '이극 구조'로 보는 견해, '지역 강국으로서의 중국'과 '세계적인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등의 견해가 있다(Aaron L. Friedberg, 1993/94: 5-33; Richard K. Betts, 1993/94: 34-77). 이러한 견해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잠재적인 초강대국인 중국의 상호 견제와 공존, 그 사이에 경제대국인 일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창시자 월츠(K.Waltz)에 의하면 삼각 관계는 '이극' 아니면 '다극'으로 이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가장 위험한 것이다(Kenneth Waltz, 1979: 163). 美·中·日

관계의 양상은 전형적으로 삼각 관계의 불안정성에서 연유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가능하다. 그 불안한 삼각관계의 한 가운데 한국이 위치해 있고 그 때문에 한국문제는 바로 미·중·일 삼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영향 받기 쉬웠다. 월츠의 이론대로 미국과 일본이 동맹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미국과 중국이 연합하여 일본을 견제하는 그 어느 경우든 삼국 관계는 불안정하게 되고 그 사이에 위치한 한국으로서는 미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미·중·일 모두 한국과는 중대한 이해 관계를 가진 나라이며 한국으로서는 어느 나라든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미·중·일에 비해서 상대적인 국력이 약하고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이라는 대륙세력과 미국, 일본이라는 해양세력의 변함 없는 경쟁의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3국간의 와중에서 한국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3국간의 경쟁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외교정책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덮고 있는 MD(Missile Defense)를 둘러싼 미·중·일 간의 정책공방의 본질은 이러한 국제정치의 구조와 상대국에 대한 인식변화의 역사적 맥락, 지정학적 위치를 냉철히 분석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2000년 6월 15일의 극적인 남북정상 회담으로 얻어낸 남북한간의 화해 분위기도 이 문제의 대처 여하에 따라서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미국의 참가 압력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이 논문에서는 제Ⅱ장에서 근현대에 있어서의 미·중·일간 안전 보장 문제의 역사적 전개를 간략히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TMD(Theater Missile Defense), NMD(National Missile Defense)정책공방을 중심으로 한 클린턴 시대의 3국간의 안전보장 문제를, 제Ⅳ장에서는 부시 행정부 시대의 3국간의 MD를 둘러싼 안전보장 문제를 지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제Ⅴ장에서는 한국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취하여야 할 외교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다.

## II. 미·중·일 관계의 역사적 전개-안보 전략적 관점에서부터

미·중·일은 20세기에 있어서도 격심한 전략관계의 변천을 경험했다(國分良成 編著, 1997: 24-25; 船橋洋一, 1997).<sup>1)</sup> ①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과 미국의 對

1) 고꾸분 료세이(國分良成)는 20세기의 미중일 관계를 4 단계로 나누고 있다. 제 1시기는 1945년까지 :일본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연합한 시기, 제 2시기는 1972년의 미중접근과 중일국교 정상화까지 : 미일이 공동으로 중국을 봉쇄한 시기, 제 3시기는 소련 해체에 의한 냉전의 붕괴까지 : 소련을 주요한 대항목표로 해서 미국과 중국, 일본이 연합해서 대항한 시기, 제

중국정책의 차이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미국과 중국이 연합하는 형태로 일본의 중국침략에 반대해서 일본과 싸웠다(船橋洋一, 1995: 123). 2001년 5월 개봉된 영화 '진주만'에서는 미국군이 중국군과 협조하여 파시스트 일본군과 싸운다는 배경을 깔고 있는데 이런 유의 배경설정은 미·중 관계가 갈등을 노정 할 때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 될 것이다(탕본(湯本), 2000: 44-47). 실제 2차 대전 중 미국은 중국군을 병참 지원하여 중국군이 일본군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당시의 상황은 시데하라 기쥬로(幣原喜重郎)외상의 영미를 중시하는 '협조외교'의 붕괴와 그 뒤를 이은 일본의 중국 정책을 둘러싸고 미일의 갈등은 노정 되었으며,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침략을 감행하자 미국은 일본에게 외교적으로 항의했고, 연이은 외교교섭의 실패의 결과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감행하였다. 따라서 미·일간의 태평양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중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많은 일본인들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②1945-1972년은 대략적으로 말한다면 미국과 일본에 의한 '중국붕쇄' 시기로 중국내전에서 미국은 국민당을 지원했으며 1971년까지 중국을 승인하지 않고 유엔에서의 대표권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 위에 1950-1953년의 한국전쟁에서는 미국과 중국은 전쟁 당사자였으며 베트남 전쟁에서도 중국은 베트남을 지원해서 미국과는 적대 관계에 서게 되어 미국과 중국은 대립관계 이었다. ③1972-1989년은 미국이 베트남 문제의 해결과 소련에 대항한다는 목적으로 중국을 중시했고, 1967년부터 중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 닉슨(R. Nixon) 대통령은 1972년 역사적인 중국방문을 통하여 '미·중·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실현시켜 소련에 대항하는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Richard Nixon, 1994: 참고).<sup>2)</sup>

따라서 삼국 관계를 월츠의 이론에 따라 기본적으로 '이극'이나 '다극'으로 이행하는 불안정한 상태로 본다면, 삼국 가운데 두 나라가 제휴하여 다른 한 나라를 견제하는 것은 불안과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바, 미·중·일 관계에서도 이러한 이론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냉전기를 통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일본은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자립적 혹은 독립적인 옵션을 취할 수 없었다(Ming Zhang and Ronald N. Montaperto, 1999: 94; 田中明彦, 1991). 그래서 냉전의 종언은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외교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본은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취했다고 할 수 없다. 일본외교에 있어서의 '외교 주체성'의 확립은 여전히 요원한 문제로 보인다.

냉전후의 미·중·일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 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어떤 의미에서 3국 관계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 위협성과 유연성이 있으며 균

4 시기는 오늘날의 단계: 지금까지는 새로운 미·중·일 관계의 구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2) 닉슨이 중국과의 대화를 필요로 한 것은 무엇보다도 베트남 전쟁을 종결 시켜야 할 정책적 압박이 있었다.

형유지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갑자기 미군을 철수 시켜서 이 지역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일본은 미국 재무성 채권의 구입을 중지해서 미국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중국도 개방정책을 중지해서 외국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등, 정책여하에 따라서 무너지기 쉬운 미국중심의 2등변의 삼각관계라고 말 할 수 있다(Kishore Mahbubani, 1997: 156). 또한 삼국 간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통일문제’라는 냉전의 유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현재 미·중은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에서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 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일은 「중·일 평화·우호조약」, 미·일은 「미·일 안보조약」을 맺고 있으며 서로 협조와 견제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냉전의 종언은 미국으로 하여금 초강대국의 위치에서 독자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하게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적 대립을 조작해서 양국을 조종하려고 했다. 따라서 클린턴 정부 시대에는 중국에 좀 더 중점을 두었고, 중국이 미국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시 정부는 다시 일본 중시 정책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고 인식할 수 있다. 미국은 이제 클린턴 시대의 개입과 포용보다는 패권적 우위에 우선 순위를 두는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미·중·일 간에 MD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여야만 그 참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미국과 일본이 결탁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결과로 삼각관계의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증가한 시점에 와 있으며, 미국이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조작하여 미국에 유리한 국제정세를 유지하려는 것, 미국내의 방위산업 업자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 미국의 독주를 현실로 들어내는 MD의 구축이 평화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이 삼국간의 MD논의의 핵심이 된다.

### III. 클린턴 정부시대의 미·중·일 관계-TMD, NMD정책공방을 중심으로

클린턴 정부시대에는 TMD, NMD를 중심으로 미·중·일의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싼 정책공방이 전개되었다.

여기서 TMD란 냉전후의 탄도미사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재외미군과 동맹국을 전역·전술탄도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을 말한다. 미국 육군의 지상배치형은 고도 100km이상의 대기권외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THAAD(전역고고도방공)와 고도 30km이하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PAC-3로 구성되어 각 각 2008년, 2010년에 최초의 부대의 실전투입을 가능하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미국해군은 이지스급 순양함과 구축함으로부터 고고도 요격용의 SM-3미사일과 중·저고도 요격용의 SM-2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인데 개발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 2005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NMD란 미주 50개 주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요격 시스템을 말한다. 1995년에 2005년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했고, 그 후 미국의회에 의해 실용화 시기를 2003년도로 했지만 기술적 문제로부터 2005년의 제1단계 완성 예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NMD는 배치에 있어서 1972년 미소간에 체결되어 모든 종류의 전역미사일 방어체제를 금지한 '탄도탄요격 미사일조약(ABM, Anti Ballistic Missile)'을 수정 내지는 파기하여야 하므로 동 조약을 계승하고 있는 러시아 뿐만 아니고 중국과 다른 나라의 반대와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그 배치의 가부도 원래는 2000년 여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NMD시스템의 개발 기술이 늦어지고 기술적인 미성숙을 이유로 다음 정권에 그 결정이 미루어졌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 계획을 둘러싸고 미·중·일 간에는 외교설전이 펼쳐지게 되었다. 미국이 일본과 대만, 한국을 이 계획에 끌어넣으려 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를 포함한 그야말로 세계적인 외교이슈가 되었다.

그 가운데 일본이 미국의 TMD계획에 참가해야 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대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미·중·일 간의 정책공방은, 미·일은 물론 중국도 선제 공격할 의도가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둘러싼 정책공방이 사실과는 관계없이 상승, 비등한 예라고 생각된다. 사실 미국은 일본과의 무기의 공동생산, 군사정보의 공유와 함께 1993년부터 전역 미사일 방어구상(TMD)의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해 왔다.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참가하는 일은 양국 간의 방위협력의 가능성과 자금, 기술,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Patrick M.Cronin, Paul S. Giarra and Michael J. Green, 1999: 173). TMD를 배치하는 것은 일본 뿐만 아니고 중국의 반응과 러시아와의 ABM조약의 파기 문제도 관련된 복합적인 사항이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등 많은 나라들의 이해문제가 걸려 있다.

실제 TMD의 추진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적합하며 군사산업의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가 TMD가 가져올 새로운 군비경쟁을 충분히 생각할 여유도 주지 않고 미국의 국내정치는 최첨단의 능력을 추구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는 세계 1위이며, 2위부터 12위까지를 합한 방위비 보다도 많다(James Adams, 2001: 102). 미국의 2001년 국방예산은 약 2960억 달러로서 적대국이라 생각되는 나라들의 국방예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북한 98년 43억 달러,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172억 달러, 그러나 실제로는 그 3-4배로 추정 됨). 1999년 6월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통계로는 1998년 미국은 세계 무기 생산량의 50%를 차지했다. 또한 무기 수출에 있어서도 1998년 세계무기 판매량은 230억 달러였지만, 그 중의 30.9%인 71억 달러는 미국의 수출이다. 이런 규모의 산업을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무기의 생산을 계획하여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무기구입 예산을 증액하

여 군비를 현대화하려는 계획은 새로운 군사위협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군수공장을 폐쇄하지 않기 위해서이다(Harvey M.Sapolsky, Eugene Gholz and Allen Kaufman, 1999: 83). 실제 냉전이 끝난 다음에도 미국 정도로 빈번하게 군사작전을 전개시킨 나라는 없다. 1999년의 코소보전쟁은 유엔의 승인 없이 전쟁을 개시해서 미국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의심스럽게 했고, 미국의 힘에 의한 외교의 피로감을 노정시키는 장면이었다. 물론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위협과 1995년의 대만위기 때의 M9미사일을 실제로 사용한 중국의 유연하지 않은 태도가 TMD를 추진하는 구실이 되어 왔지만 미국 자신의 빈번한 무력 사용은 과연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진력하고 있는가 의심을 갖게 한다.

### 1. TMD에 관한 중국의 반대

중국은 전역 미사일 방위구상의 ‘방위’라는 말은 실제로는 ‘위협’과 ‘진공’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唐 天日, 1999: 8). 러시아는 미국이 TMD를 추진하면 ABM조약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반대의 입장이었다. 일본은 1999년 8월 미·일 간의 TMD공동연구양해각서(TMD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설계 단계에서 각각 3600만 달러 이내의 재정부담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1999년의 「방위백서」에서는 TMD가 방위적인 시스템이며, 전수방위의 원칙에 일치하고 미일안보체제의 신뢰성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사실 일본이 TMD에 참가하는 일은 미일양국 만의 문제는 아니고 북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다. 만약 대만도 TMD망에 들어간다면 미·일·대의 군사시스템은 상당한 레벨에서 통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일·대의 연합에 대항해서 중국은 최소 억제 전략의 관점으로부터 TMD에 대항할 수 있는 MIRV식 핵미사일을 늘릴지 모른다. 미국의 TMD추진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서 자기 예견적인 위기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러시아와의 군사관계를 고려해서 미국 내에서도 TMD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Michael O’Hanlon, 1999: 80-81). 미국이 불필요한 의심과 불신을 중국에 주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이 이 지역에 발생할 원인이 될지 모른다.

1999년 4월 2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중국인민일보는 「미국은 왜 전역 미사일 방위구상(TMD)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논문을 실고 있다(중국 『인민일보』, 1999년 4월 2일). 인민일보가 공산당 기관지이므로 인민일보의 의견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의견에 가깝다. 이 논문에서 TMD는 ‘냉전적 사고’가 역사의 무대에서 남아 있으므로 생겨났다고 보고 있다<sup>3)</sup>. 다음, 그 목적은 ① 21세기

3) 여기서 말하는 ‘냉전적 사고’는 세력 균형, 억지, 강제력에 의존하는 권력 정치적인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미일동맹에 의한 중국봉쇄와 인권문제에 관한 내정 간섭 등을 말한다. 한편 여기에 대해서 ‘신사고’는 협조와 교류를 통해서 안전보장과 번영을 달성하려는 방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협조적 안전보장, 신뢰양성조치, 안전보장

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 냉전 후,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2015년 이후 러시아, 중국 혹은 다른 나라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TMD를 개발해서 미국의 군사상의 절대 우위를 계속하려는 것. ② 동맹국의 기술과 자금을 사용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안전보장체계에 더욱 연계시켜,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 ③ 미국내의 당파 투쟁에의 필요. ④ 미국의 군수산업의 수익을 지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민일보는 TMD는 시대의 조류에 거슬리는 것이며 국제평화와 지역전략 균형을 부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미 최고수준의 재래 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TMD를 설치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적인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또한 이것은 여러 종류의 국제 군축협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리일으킬 지도 모르며 첨단 무기와 기술의 확산을 가져오는 동맹국과의 개발과정은 타국에 대해서는 군축협정의 준수를 강요하면서 미국은 지키지 않는 이중 기준이라고 비난한다. 최후로 TMD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장애이며 미·중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신 가이드라인」 속에서의 소위 ‘주변지역’ 이라는 불명확한 말로 대만지역에의 군사개입 문제를 애매하게 은폐하면서 TMD연구에 참가하여 군사 대국에의 길을 가속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 속에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다. 즉, 일본은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일외교문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결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하여 일본의 위치를 종속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 2001년 들어와서 중·일 간의 역사 교과서 문제, 전 대만 총통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 대중 무역에 있어서의 세이프가드 발동 등을 보더라도 일본은 중국정책에 있어서도 미국의 흐름을 따라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으로 돌아서지 않았다면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올 개연성이 낮아졌을 것이다.

중국 외교부 군비 통제국의 사 조강(沙祖康)국장도 1999년 1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카네기 기금의 심포지움에서 연설하여 일본과 대만의 참가를 견제했다(『北京週報』, 1999: 9). 사 국장은 ①고성능의 TMD 혹은 NMD의 개발은 도미노적인 확산에 의해서 전략적 안정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가져온다. ②다른 나라, 지역에 시스템을 양도, 공동으로 개발하는 일은 싫든 좋든 그 기술을 확산시키는 일이 된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미사일 기술과 요격미사일 기술은 서로 통하며 요격미사일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기술은 공격성의 미사일의 개발과 개조에도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TMD에의 가입

대화의 추진 등이다.

은 대만 독립세력에 힘을 주어서 중국의 통일에도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리라고 비난했다. 만약 대만이 TMD에 참가한다면 미·중 관계는 대만이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으로 연결된 1979년 이전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으며 중국과 대만과의 격심한 군비경쟁과 새로운 냉전을 이 지역에 발생시킬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2개의 논문을 요약하면, 미국의 TMD는 핵무기의 확산 금지 체제와 군축의 기반을 흔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주변국의 핵미사일의 증강을 가져올 것이며 특정국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무기이며 일본의 전력증강과 독자의 핵무장에 연결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공격용으로 전환되므로 중국이 오히려 위협을 느낀다는 것 등이다. 이것은 ‘군사동맹에 기초한 낡은 안전관’은 국제안전의 보장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며 냉전후의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안전관’이 필요하다는 냉전후의 중국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TMD체제에 편입되어 미·일·대 간에 군사연합이 생기는 것을 겁내고 있다. 실제 중국은 현재 보유중인 25기의 핵미사일이 그 목표가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TMD를 둘러싼 중국의 반응에는 TMD가 방위용이라는 미·일의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점, 미·중·일 간에 신뢰 양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미·일이 권력정치적 대결의 사고를 연장했다는 것, 일본의 애매한 태도, 대만문제에 있어서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 어려운 점, 중국이 역사 경험으로부터 일본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등이 작용했다.

## 2. 미일 동맹의 재해석과 TMD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은 여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미·중·일 간의 안전보장 문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윌츠의 주장에 따라 ‘이극 구조의 안정된, 예측 가능한 냉전시대 안전보장 환경’이 없어진 지금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미일동맹의 필요성은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일도 가능하나, 언제까지 미일동맹만이 냉전후의 세계에 있어서 테러공격, 지역분쟁, 에스닉 분쟁 등을 예방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Anthony DiFilippo, 1998: 29). 양국 간의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은 양국의 정부가 소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대아시아 정책의 기본정책을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시키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다(Douglas Stuart, 1997: 60). 미국의 수사는 아시아에서의 다각적인 안전 보장의 대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나, 사실은 미·일 간, 한·미 간, 미·호 간의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특히 일본과 중국이 공통으로 참가하는 아시아 국가에 의한 군사 블록의 형성을 반대하여 왔다. 미국이 수 년 간 주도권을 가진 것에 익숙해 있고 또한 관료기구의 주도권과 관련된 동맹의 관행을 없애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미국은 올바르지도 않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미사일에 의한 위협을 일본인에게 주의시키는 일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특권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TMD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해서 일본의 기술에 대한 접근은 일본의 국익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기술에의 전환이 가능한 일본의 민간기술이 일단 미국에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보장은 없다. 한편 냉전이 끝나고 명백한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 일본이 조기 발견 시스템과 요격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방위체제의 문제가 있으나 그 대신에 명확한 적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TMD에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미국의 전략에 휘감기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평화 헌법 제9조’의 제약이 있으므로 TMD에 참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도 해석된다. 일본은 이 문제가 일본 1국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인 것을 인식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몰러(J. Müller)가 『Retreat from Doomsday: The Obsolescence of Major War』라는 제목의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아시아의 대부분의 정부도 유럽 국가가 인식하는 정도로 국가 정책으로서의 ‘전쟁의 무용성=전쟁 무용론’을 인식하고 있다. 즉, 아시아의 어떤 국가도 전면전쟁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하여 전쟁을 도발할 나라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상호 주관적인 인식의 변화가 이 지역의 지식인 사이에서는 대체로 합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이끌려 가는 것은 일본이 미국의 전략에 휘말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분간 일본이 TMD에 참가하는 정당한 이유는 ‘미일동맹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없는 명분뿐이며 실제로는 미국이 필요에 응하는 것 이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 미일동맹은 두 개의 문제 (1)오끼나와(沖縄) 미군기지 (2)일본의 종속적 지위(Junior Partner)의 문제가 있으며 호소가와(細川) 전 수상은 ‘년 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무거운 재정부담 때문에 미군의 주둔은 20세기에 종결시켜야 한다’고 했다(Morihiro Hosokawa, 1998: 29). 이러한 요소는 위협할 때는 미국으로부터 ‘무임 승차’의 비난, 혹은 일본으로부터 ‘지배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사실 미일동맹은 현실주의자가 상정하고 있는 국제 정치의 힘의 분배적 구조를 넘어서 양국의 국내정치, 상호인식, 역사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미일안보 조약은 안전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동시에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의 촉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규정이 있으므로 동조약은 좁은 방위면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관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페리(W. Perry) 전 국방부 장관에 의해 ‘북의 닻(Nothern Anchor)’이라고 불려진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미일 안전보장 관계는 미일 관계를 영속화하고 고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냉전 후에도 오히려 미일 동맹을 강화시켜 ‘주변지역’이라는 애매한

말로 유사시에 일본의 주변 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을 가능하게 한 것은 2차 대전 후 「평화국가」를 표방한 일본의 외교정책과 일견 모순되는 현상이며 아직도 일본 외교의 이니셔티브는 ‘냉전적 사고’에 익숙한 일부의 외교 기득권에 속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 같은 일본 외교의 원로는 아직도 ‘영미 위주의 외교를 기본으로 하여야 일본이 번영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며(岡崎久彦, 1999: 206-211) 일본 외교는 이러한 외교에 있어서의 기득권 층의 영향으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IV. 부시 정부시대의 美中日 관계-MD정책공방을 중심으로

TMD, NMD란 용어는 2001년 부시 공화당 정부의 성립과 함께 새로이 MD라는 통일된 관념으로 통합되어 규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MD와 같은 ‘전략적 키메라(strategic chimera)’(Stephen Walt, 2000: 66)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둘러싼 미·중·일 간의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역사적 맥락을 참고하여 현실의 정책공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1. 미국의 입장

클린턴 대통령은 98년 중국 방문시 상하이에서 「3불 선언」<sup>4)</sup>으로 일본보다도 중국을 훨씬 중요시한다는 것을 수사로 보여 주었다. 그러한 클린턴 시대의 중국 중시 정책은 변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중국을 클린턴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ship)’보다는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미·중간에는 대만 문제, 인권문제, 핵기술 절취사건, MD문제, 무역 불균형 문제 등의 난제가 있다. 이렇게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관계로 인식할 때 미국에게는 일본카드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된다. 말하자면 미국은 다시 한번 권력 정치적 패러다임(power politics)으로 돌아가서 중국과 일본의 대립을 극대화하여 그 중간에서 동아시아의 어떤 국가들의 협력·연합도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부시정부에는 소위 일본 전문가가 새롭게 포진해 있다. 국무부 부장관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경제자문의 린드세이(Larry Lindsey), 국무부 아·태차관보의 켈리(Jim Kelly)등이다. 이 가운데 아미티지는 일본이 평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일본측에 요망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를 주장하며<sup>5)</sup> 94년의 북한핵 위기 시에는 선제 공격을 주장한 군사

4) 두 개의 중국을 인정 않으며, 대만의 독립을 용인 않고, 대만의 주권국가로서의 국제기구에 가입에 반대한다.

매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측은 국방장관 럼스펠드(Donald Rumsfeld)와 아미티지, 국방부의 울포위츠(Paul Wolfowitz)등의 군사·외교 정책 중심선 인물들의 반중국적 태도와, 경제우선이 필요한 미·중 관계가 군사문제 우선으로 얼룩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내의 일본 우선주의자들의 정책목표는 일본을 ‘아시아의 영국’으로 만들어서 가장 든든한 동맹으로 삼자는 것이다(*The Economist*, March 17th 2001: 26). 이 경우 일본이 독자적 외교노선을 취하지 못하고 미·중의 어느 나라에 추종하는 것(bandwagoning)이 삼국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의 고이즈미 정권의 등장과 그 예상을 뒤엎는 높은 인기도는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일본 국민의 일부에 내재하며 이시하라 신타로(石原眞太郎)동경도 지사 등에 의해 부추겨 지고 있는 반중국 정서를 자극할 가능성을 높게 만들었다. 때 마침 미국의 군사 전략도 방향전환의 때에 와 있다. 먼저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위기에 동시에 대응한다는 전략에 대한 수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마샬(Andrew Marshall)은 점차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예상하는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을 주도한 일이 있어(*The Economist*, June 2nd 2001: 27) 미·중 관계의 군사적 요인이 자칫 불안정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 수는 줄인데 반해 중국에 대해서는 핵무기 절취 사건 등으로 인해 핵경쟁을 의식하고 있다.

또한 부시정부의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1998년과 2001년 1월의 2차에 걸친 ‘럼스펠드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1차 보고서에서는 미사일공격의 위협이 예상외로 빨리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하여 TMD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 클린턴 정부의 배치 결정을 앞당겼으며, 제2차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언젠가 ‘우주 진주만(Space Pearl Harbor, 미국의 위성에 대한 기습적인 공격을 의미)’공격을 당할 위협이 있으므로 현재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주에서의 군사활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Joint Vision 2020」에서도 우주공역과 정보 면에서의 우위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주에서의 우위 선점 경쟁은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뿐이지 실제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도 있다(Michael Krepon, 2001: 2-8). 더욱이 우주에서의 평화이용을 규정하고 대량 파괴 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우주에서의 배치를 금지하고 있는 1967년의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위반하는 결과도 될 수 있으므로 미국은

5) 2001년 5월 일본을 방문한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총리에게 “현재 일본의 헌법해석은 미·일 간의 협력 관계에 장애가 된다”며 일본측에 헌법 해석 변경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우주의 군사화 문제를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국무장관 파월(Powell)이 공언한 대로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D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결정적인 후퇴를 할 것이다.

## 2. 일본의 입장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유보한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듯이 보였으나 점차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의 입장을 고려하여 ①미국이 MD 체제를 개발하려는데 이해하며 ②그러나 계획과정에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관련국과 협의하기를 희망하고 미국의 계획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③MD에 관련한 미일공동연구를 계속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 뒤 국내에서의 정치적 인기도의 상승에 힘입은 고이즈미(小泉) 수상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변하여 MD의 배치가 핵무기를 무용으로 만들 것이라고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발언을 했다. 그러다가 2001년 6월17일 나카타니 겐(中谷 元) 방위청 장관이 아사히 TV의 방송좌담에서 미국의 MD 구상에 대해 “미국이 하려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발언을 했다. 이것은 ‘평화 헌법 제9조’를 의식해서 한 발언으로 문언만으로 본다면 일본이 TMD 연구에는 참가하나 MD에는 당분간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MD추진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 자민당 정권은 헌법해석을 변경해서라도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는 “배치와 개발은 별개의 문제”라며 나카타니 발언에 이해를 표시했다. 실제 일본은 2001년 6월 30일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미·일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신시대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2001년 7월의 「일본방위백서」에서도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우려를 표시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미일동맹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인이 MD에 갖는 태도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0년대에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본은 걸프전쟁 당시 총액 130억 달러에 달하는 전비를 부담하고서도 국제 사회에서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수표외교(chèque book diplomacy)’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때의 외교적 충격으로 국제 정치에서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 활동을 동반한 ‘보통국가’로의 변신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오자와 이찌로(小澤一郎)의 ‘보통국가론’은 이러한 일본의 변신을 재촉하는 문건이다. 또한 92년 6월 PKO법(國際平和協力法)의 성립으로 일본군의 해외 파견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조류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익 역사 교과서의 공론화와 의도적인 검정 통과, 고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공식적으로 참배하는 것 등으

로 나타나 일본사회의 자기 목소리 내기가 가속화하고 있음은 주목 할 하다.

한편 냉전후의 일본의 정치 변화도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특히 「미일 신가이드라인」의 체결, 1999년의 「국기·국가 법안」의 제정,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내의 ‘헌법조사회’의 설립, 최근의 우익 역사 교과서 편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태도라든지, 대만에 대한 동정론적 언설의 증가, 고이즈미 수상에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대한 참배 등 일련의 의미 있는 사건들의 연속은 일본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 위에서 일본이 MD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심히 염려스러운 일이 된다.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끼친 90년대의 사건으로 이 외에도 ①1995년과 1996년에 중국이 행한 대만 해협에서의 미사일 테스트 ②1998년의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 사건- 이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급속히 TMD연구에 참가시키는 계기가 됨 ③전지구적 규모의 핵불확산 운동에 역행했던 인디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과, 1999년의 미 의회에 의한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의 불승인을 들 수 있다(Yoichi Funabashi, 2000: 136). 현재 일본은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과 전 세계적인 핵무기의 확산, 유효적인 미사일 통제 기구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것을 중요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MD에의 참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과 오히려 미일 동맹의 강화에 의해서 일본이 공격 목표가 됨으로서 일본의 안전은 더욱 위태롭게 되었다는 양자의 시각이 여전히 존재함도 사실이다. 또한 일본에서도 이러한 MD의 추진에 의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 될 것이라는 시각과, 설령 ABM조약을 미국이 파기하더라도 러시아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태이므로 미국의 의지가 관철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 일본이 MD에 대해서 느끼는 이해 판단의 기준은 후나바시 요이찌(船橋洋一)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이것은 과연 일본을 보호해 줄 것인가? 지나치게 미국 보호 위주로 계획이 짜여져 ‘미국요새(Fortress America)’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 ②북한의 위협은 실재하는가? 아니면 미국이 과장시킨 것인가? ③명확한 청사진이 없다. 그래서 미국의 군수산업만 살찌우는 게 아닌가? ④여기에 참가함으로써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게 아닌가? 최악의 경우에는 일본에 배치된 미사일 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⑤국제적인 미사일 통제 노력에 역행하지 않는가? 등이다(Yoichi Funabashi, 2000: 137-142).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MD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외상인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는 2001년 5월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의 오찬장에서 이탈리아의 람베르토 디니 외상에게 “(미국이) 미사일 위협이라고 말 하지만 정말 미사일 방위가 필요한가, 일본과 유럽연합은 목소리를 합쳐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해야 한다” 며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위 구상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나카는 부시의 MD추진의 배경에는 석유업자들의 로

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두 발언은 나중에 부인되기도 하였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인의 숨겨진 속마음’을 잘 들어내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진다. 일본 정부 역시 일본의 명확한 참여 필요보다는 미일동맹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일본은 오키나와(沖繩)의 미군에 대한 일반 민중의 반감을 잠재우기 위하여 2000년 G8 서미트를 오키나와에서 개최했으며 후텐마(普天間)기지의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일본의 경우 벌써 공동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전역 미사일 방위연구 개발에 참여했으며, 1999년에는 TMD 공동개발각서(TMD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교환하고 1999년에서 2003년까지 일본이 부담하는 연구 개발비만 하더라도 200억-300억 엔이 추정되며 사업 종료에는 1조-2조 엔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여 MD의 연구개발과 MD의 참여를 분리하는 태도이며 연구개발은 흔쾌히 수락하면서도 실전 배치에는 소극적 자세여서 미일군사동맹의 협력 틀을 유지하면서 기술 개발력을 축적하자는 태도이다(김정원, 2001년 5월 24일). 이렇게 MD에의 참여와 연구를 분리하여 실리를 챙기려는 일본의 태도를 우리 외교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의 외교적 입장보다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여 어쩔 수 없이 MD에 참가한다는 인상을 주기 쉬우며, 이 경우 중·일, 러·일 관계의 희생을 무릅써야 할 것이다. 또 MD에 참가하는 것이 ‘평화 헌법 제 9조’의 위반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또 다시 ‘아시아주의’와 ‘구미주의’의 사이에서 양자 택일을 강요당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추구해온 구미 중시의 외교는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의 근린국가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배양하였고 한국병합, 중국 침략 등의 역사적 불행을 자초하였다. 일본이 그 아이덴티티의 중심을 다시 한번 구미에 두게 되어 미국과 동맹관계를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려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본은 ‘주체성’ 없는 미국 추종의 외교가 보다 큰 외교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3. 중국의 입장

중국에서 볼 때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를 막론하고 제국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공통적 합의(Imperial Consensus)를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미국은 유일한 「超級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계속하려는 「패권영속」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을 가상적으로 하여 지난 20여 년 간 취해온 전략적 모호 원칙을 버리고 「一中一台」 혹은 「兩個中國, 두 개의 중국」의 냉전초기의 미국정책으로 복귀

하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주에서의 무기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등 군사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亞洲週刊』, 2001年5月7日-5月13日: 7). 따라서 중국은 새로운 군비경쟁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가져올 MD의 전개에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MD가 공격용으로 쉽게 전환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무기를 무력화시켜 중국으로 하여금 보복수단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파악되므로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하여금 핵경쟁에 나서게 만드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전략무기의 수준이 빈약하므로 MD의 실제 목표는 중국임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미국의 ‘일방주의(Unilateralism)’ 라는 외교적 오만에서 나오는 패권주의적 태도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것은 내외의 장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중국은 보고 있다. 또한 2001년 5월 1일, 부시 대통령은 연설을 통하여 러시아를 찬양하는 등 「聯俄反中」을 통하여 ‘다극시대’의 막을 내리고 미국 「單極強權」시대를 이룩하자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나 장차 중국과 러시아, 유럽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2001년 6월의 ‘상하이 협력회의’에서 러시아와 공동으로 MD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미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할 수 있게 되어 부시를 견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국방정책도 우려할 정도의 속도로 군비를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2000년 10월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명백하게 미국을 주된 위협으로 규정했다. 또한 2001년 3월에는 18%인상된 국방예산을 공표했으며 이것은 최근 20년 간 중 가장 그 인상폭이 높았다. 중국은 만약 미국이 MD를 강행하고 대만이 그 속에 참가한다면 대항책으로 새로이 핵무기의 숫자를 늘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핵무기는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라고 평가되지만 중국은 MD의 추진에 의해 그 힘이 무력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ABM 조약의 개정에도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만약 중국의 급속도로 발전하는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전환된다면 미국으로서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 중국은 ‘핵무기의 선제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no-first use policy)을 국제사회에 수 없이 강조하고 있고 이 원칙을 현재도 지키고 있다.

#### 4. 평가

미국은 왜 MD를 추진하는가? 사실, 미국은 지금 군사적으로 본다면 독점적인 초강대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MD를 추진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겨우 미국이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앞으로 5-10년 뒤에 있을 수 있는 북한, 이란, 이라크 같은 예측 불가능한 불량국가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이나 이런 명분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 이란, 이라크 어느 나라도 미국에게 미사일로 도전할 것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국조차도 가까운 장래에 미국에게 미사일로 대항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설령 이들 나라들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더 무서운 보복이 있을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사실 이들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사일 공격이 아니라 기껏해야 미국 내에서의 테러 공격을 지원한다거나 해외에서의 작은 규모의 미군기지에 대한 테러 공격 정도일 것이다. 미국의 MD를 추진하는 정치가와 방위산업업자들은 빈번히 북한 미사일의 현재 능력과 그 가능성을 과장하고 있다(Selig S. Harrison, 2001: 66)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이나, 만약 미국이 타이완을 돕기 위하여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이 로스앤젤레스를 핵 공격할지 모른다는 현대 미국 외교에 있어서의 거짓 신화(*The Foreign Policy*, 2001: 15)<sup>6)</sup>는 미국인이 갖고 있는 위협인식이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득력도 없다. 이것은 역사학자 케네디(P. Kennedy)가 말한 미국의 ‘imperial over-stretch’ 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역시 이러한 계획의 첫 번째 목적은 미국의 군수산업의 이익을 확보하는 일이다. 300만 명의 피고용인과 1만인의 로비스트를 거느렸다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대표적 4대 군수 산업 업체인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TRW 등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호황을 누릴 것은 말할 나위 없다. MD는 지상, 해상, 항공, 우주 시스템을 건설하게 됨으로서 이와 관련된 각종의 장비와 고도의 군사과학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많은 연구비와 주문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군수산업 업체들이 가장 이 계획을 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사회적 이해관계로부터 끊임없이 이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연구를 위한 3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예산은 방위업체에게 돌아갈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1999년 ‘National Missile Defense Act’ 에 사인 한 것은 미국내의 군수산업을 배경으로 한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타협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Stephen Walt, 2000: 73). 두 번째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가상적으로 만듦으로서 미국 헤게모니의 국제질서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일본, 한국, 대만, 인도로 이어지는 반달형 방위선을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MD 추진의 명분은 성립하기 어려우며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여태까지 이 계획에 찬성하는 나라란 중국과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우려하는 인도, 미국과의 군사 면에서의 연계를 강화시키려는 호주, 영국, 폴란드 등이다.

부시 대통령은 ‘상상된 위협’ 보다는 ‘실제의 위협’ 에 근거해서 국방정책을

6) 이것은 중국관리가 당시 국방차관보 C. 프리만(Chas. W. Freeman)에게 말하기를 ‘중국은 미국의 군사개입의 두려움 없이 대만에 대해서 자유롭게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지도자들은 타이완 보다 로스 앤젤레스(Los Angeles)를 더 걱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MD를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세계는 좀 더 안전한 장소가 되는가? 세계는 더 불안정하게 되고 미국은 더 고립되며 위험하게 될 것이다 (John Newhouse, 2001: 109). 부시 대통령은 냉전 투사형의 인물로 비난받고 있으며 독일의 저널리스트 요페(J. Joffe)는 ‘만약 미국이 강행한다면 역사와 정치 이론의 철칙에 의해서 러시아, 유럽, 중국이 연합하여 미국에 대항할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The Lexus and The Olive Tree*)』를 통해 세계화의 실상을 계도했던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2001년5월 15일, “부시가 우려하는 바대로 불량국가들이 보복공격을 당할 줄 알면서도 미사일로 공격할 만큼 어리석지 않을 것” 이라 하면서 “1000억 달러나 소요될 MD체제추진은 가능성이 극히 적은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어쩌면 전혀 사용되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미국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미국 내에서도 예산상의 문제와 기술상의 문제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며 더욱이 그린피스(Greenpeace International)등의 NGO 들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미국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우며 과대 포장된 개념을 버리고 전반적으로 이 계획을 재평가하여 아시아의 안전을 동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국, 일본도 좀 더 주체성 있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여 국익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것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표현대로 ‘병보다 더 나쁜 약인 미사일 방어망’ 이 아니라 설득을 통한 외교, 경제 협력, 진지한 협상자세일 것이다.

## V. 결론-정책적 함의와 한국의 선택

### 1. 국제관계의 변화와 미·중·일의 안전보장 문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일 간의 MD정책공방은 대단히 위험하며 ‘편견’ 에 차 있고, 사실 인식과는 관계없는 비현실적인 언설임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의 유대를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가운데 한국은 주체성 없이 미국의 정책에 끌려간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더욱이 그 정책공방이 사실에 근거한 논리가 아니라 냉전시대의 적과 동지의 흑백논리, 선악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진행된다면 이것은 중국에 대해서 불행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을 왜곡시키는 미국, 일본 역시 그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과 미일은 서로 기대어야 할 ‘타자 관계’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삼국은 더 많은 안보대화를 추진하여 편견과 허위 이데올로기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안전보장의 대화에서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근대역사의 경험으로부터 중국이 다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미일은 서로 의논해서 정책면에서 ‘중국을 배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중국이 미국과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서구 열강과 일본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착취당했다. 이러한 경험이 국민적 상흔이 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미일의 정책이 다시 한번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진다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속에 나타나듯이 젊은이들의 반일, 반미적인 민족주의에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되어 미국과 일본의 중국에서의 경제적 활동에도 지장을 가져올지 모른다.

현재 진행중인 글로벌리제이션은 차별, 편견, 분리를 없앨 기회도 되므로 여러 편견을 가진 言說, 특히 중국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일이 중요하다. 냉전시대의 미국과 일본은 공산주의를 봉쇄하기 위하여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편견을 만들었다. 국제 미디어는 ‘미국과 일본은 평화적인 나라’, ‘중국은 전쟁을 불사하는 나라’ 로서 그리기 쉬웠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삼국국민의 감정은 근대에 있어서의 편견에 가득 찬 언설에 의해서 왜곡되었다. 이러한 편견은 MD 정책공방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냉전후의 MD를 둘러싼 정책공방에서도, 미일은 물론 중국도 선제 공격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위협 인식은 상승, 비등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공격 가능성을 왜곡해 선전하고 중국은 미일의 사고를 ‘냉전적 사고’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자신도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국제결의를 거부하는 등의 냉전사고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소위 ‘냉전적 사고’는 이러한 편견과 관계하고 있으므로 냉전적인 사고를 해체하여 새로운 상호이해의 언설공간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일 3각 관계는 2대1의 적대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니고 서로가 득이 되는 윈 윈(Win-Win game) 게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국의 안전 보장 문제에서 일본의 미국에 대한 수동적인 외교관계를 생각할 때보다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의 안정이다. 그런데 양국 관계는 생각보다는 훨씬 밀접한 상호 관련을 갖고 있으며 글로벌리제이션의 영향 하에서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경향을 더해가고 있다. 또한 양국은 지구적 규모의 협조할 사항이 많다. 환경문제에서의 협조, 핵확산 방지체제의 유지, 미사일 통제체제의 유효한 운영등 이른바 ‘고수준의 국제정치’에서 양국의 협력이 없이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 안전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양국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 역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신 증가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국은 국내에서의 인권 보장문제를 국제적인 규준에 맞게 향상시키고 민주화운동을 허용하는 등으로 해

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국내개혁을 진행시켜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양국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전쟁이 양국 간의 문제를 푸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에드워드 루터윅(Edward Luttwak)이 말하는 「post-heroic age」에서는 누구도 그 자녀를 전쟁에서 희생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다.

## 2. 한국의 선택

한편 한국은 MD담론에서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이 가져오는 안정감을 포기할 수 없고 MD를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한국의 아이덴티티 문제가 걸려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중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이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고조선과 한나라의 투쟁을 위시하여 부여, 고구려는 중국과의 투쟁에서 역사를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고구려는 「려·수 전쟁」, 「려·당 전쟁」에서 굳세게 항쟁하여 민족의 방과제 역할을 하였다. 668년의 삼국통일 이후 당나라가 신라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나타내자 신라는 백제, 고구려의 유민들과 일치 단결하여 이를 극복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한족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지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후 중국의 한족과는 비교적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유지하여 송, 명과는 전쟁 없이 외교관계를 전개했다. 지금 중국은 바로 한족이 만주족을 구축하고 세운 나라이며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과는 비교적 평화롭게 지낼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국은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며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쟁을 막아 줄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의 중국은 세계경제에 개방된 국가이며 실제의 구매력 평가력으로는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어느 면을 보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나라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 시장규모로 볼 때 한국의 미래에 미국 못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 나라이다. 만약 MD에 잘못 개입함으로써 이러한 중국을 적으로 인식시키게 만든다면 한국외교의 치명적인 제약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냉전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미국은 좋은 나라, 중국은 나쁜 나라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부터 탈피하여야 한다. 1945년 이후 미국이 행한 군사작전의 수와 규모는 그 어느 나라를 압도하고 있다. 그라나다(Grenada), 파나마(Panama), 하이티(Haiti) 침공 등의 예에서 보듯이, 촘스키(Noam Chomsky)의 비판대로 미국은 폭력적인 군사행동을 너무나 쉽게 일으키는 나라이다(Noam Chomsky, 1992). 미국은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이러한 나라들에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 월남전에서 미국이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러한 미국의 도발에 대해서 투쟁하였던 호志明(胡志明)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에게도 익숙해 있다.

이제 한국도 ‘외교 주체성’을 확립하여야 할 때가 왔다. 모든 일에 무조건 미국이 옳다고 하며 미국에 추종하는 외교자세를 버려야 할 때가 왔다. 한국의 경우는 실제로 미국의 필요에 응하는 것일 뿐 한국 독자의 필요성에서 이 계획에 참가하려는 의도는 원래 없었다. 미국이 MD 참가를 한국에 한국군과 영토방위를 위해 효과적인 미사일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요했다는 신문 보도도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일찍이 “한국은 북한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체제가 쓸모 없을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공적으로 부인한 적이 있다. 이제 미국의 압력이 세어졌기 때문에 억지로 이 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중국은, 한국이란 나라는 독자적인 외교정책이 없이 미국에 의해서 끌려가는 나라이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를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재인식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정책에 관한 한 수천 년 동안 이웃으로서 공존하는 지혜를 배워 온 한국으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할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조언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Paul Johnson, *The Forbes*, 2001: 20).<sup>7)</sup> 더불어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중국을 차별, 포위, 고립시켜서는 안되며 이러한 일에 동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국의 신중한 외교 전략 필요하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각별한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부시 대통령의 MD추진 논리가 이란, 이라크, 북한 같은 ‘불량국가, Rogue State’<sup>8)</sup>로부터 미국과 그 동맹국을 지키자는 명분으로 MD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이 문제 때문에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모처럼 이끌어낸 남북의 화해 분위기를 망가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냉철히 생각해 보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식량이 부족하고 탱크와 비행기를 움직일 석유가 부족하고 남의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 나라가 미국 같은 초강대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거짓된 판단인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북한을 공격할 것을 우려하므로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한 명백한 의사 표시를 해두는 것이 남북한의 화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햇볕정책은 비록 내외로부터 비판이 있으나 계속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부시는 미국의 군수산업에게 예산을 배분할 명분을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미국의 군수산업을 살찌우고 중국과 북한, 이란, 이라크라는 비현실적인 가상적국을 가공함으로써 냉전이 끝난 후 방향을 잃고 있는 미국 국민에게 거짓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의 MD추진에 대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유럽, 러시아 등에서 회의의 목소리가 나오고 미국 내에서조차도 반대의 소리가 많으며, 가까운 장래에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나오는 것으

7) 미국 철학자 Paul Johnson도 한국, 싱가포르, 대만의 중국에 대한 역사적 지혜를 미국은 경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8) ‘State of Concern’이라는 표현도 있음.

로 보아 MD의 추진은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특히 포스트 냉전기의 국제 정치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점점 더 하고 있는 수많은 NGO들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구적 공공성의 시각에서도 MD의 추진은 국제 사회의 공익이 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김정원. 2001. 「미 안보 지도속의 한국」. 『조선일보』 5월 24일.
- 國分良成 編著. 1997. 『日本, アメリカ, 中國-協力のシナリオ』. 東京: TBSブリタニカ.
- 小澤一郎. 1993. 『日本改造計劃』. 東京: 講談社
- 船橋洋一. 1995. 『日本の對外構想: 冷戦後のビジョンを書く』. 東京: 岩波新書.
- 船橋洋一. 1997. 『同盟漂流』. 東京: 岩波書店.
- 田中明彦. 1991. 『日中關係1945—1990』. 東京: 東京大學出版社.
- 岡崎久彦. 1999. 『情勢判斷の鐵則』. 東京: php研究所.
- 宋 強 등 5인(鈴木かおり 역) 1996. 『中國可以說不』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 唐天日. 1999. 「美日同盟合作의 본질을 밝힌다」. 『瞭望』 5월 3일. 제18기. p.8.
- 沙祖康. 1999. 「핵확산방지 과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北京週報』 No.6.
- 湯本. 2001. 「珍珠港血淚發現歷史」. 『亞洲週刊』 6월 4일-10일. pp.44-47.
- 『亞洲週刊』. 2001. 「美霸權永續的新帝國共識」. 5월 7일-5월 13일. p.7.
- 인민일보, 1999. 「미국은 왜 TMD를 필요로 하는가?」 4월 2일.
- Adams, James. 2001. "Virtual Defense." *Foreign Affairs* 80(3). May/June. pp.98-112.
- Betts, Richard K. 1993-94.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8(3). pp.34-77.
- Cronin, Patrick M., Paul S. Giarra and Michael J. Green. 1999. "The Alliance Implications of Theater Missile Defense." in Michael J. Green and Patrick M. Cronin eds., *The U.S.-Japan Alliance: Past, Present, Future*.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 Chomsky, Noam. 1992. *What Uncle Sam Really Wants*. Berkeley: Odonian Press.
- DiFilippo, Anthony. 1998. "Why Japan Should Redirect Its Security Policy." *Japan Quarterly* April-June. pp.24-31.
- Friedberg, Aaron L. 1993-94. "Ripe for Rivalry for Peace: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18(3), Winter. pp.5-33.
- Funabashi, Yoichi. 2000. "Tokyo's Temperance." *Washington Quarterly* 23(3), Summer. pp.135-144.
- Harisson, Selig S. 2001. "Time to Leave Korea?" *Foreign Affairs* 80(2),

- March/April pp.62-78.
- Hosokawa, Morihiro. 1998. "Are U.S. Troops in Japan Needed?" *Foreign Affairs* 77(4), July/Aug. pp.2-5.
- Johnson, Paul. 2001. "The U.S. And China: Seven Pillars of Wisdom." *The Forbes*. June 11. p.20.
- Krepon, Michael. 2001. "Lost in Space: The Misguided Drive Toward Antisatellite Weapons." *Foreign Affairs* 80(3). May/June. pp.2-8.
- Mabbubani, Kishore. 1997. "An Asia-Pacific Consensus." *Foreign Affairs* 76(5). Sept/Oct. pp.149-158
- Müller, John. 1989. *Retreat from doomsday. The Obsolescence of Major War*. New York: Basic books.
- Newhouse, John. 2001. "The Missile Defense Debate." *Foreign Affairs* 80(4) July/Aug. pp.97-109.
- O'Hanlon, Michael. 1999. "Star Wars Strikes Back." *Foreign Affairs* 78(6). Nov./Dec. pp.68-82.
- Sapolsky, Harvey M., Eugene Gholtz, and Allen Kaufman. 1999. "Security Lessons from the Cold War." *Foreign Affairs* 78(4). July/August. pp.77-89.
- Stuart, Douglas. 1997. "Japan's Place in the New Asian Concert." *Japan Quarterly* July/sept. pp.60-65.
- Walt, Stephen. 2000. "Two Cheers for Clinton's Legacy." *Foreign Affairs* 79(2). March/April. pp.63-79.
- Waltz, K.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Inc.
- Wohlforth, William C. 1999.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24(1). Summer. pp.5-41.
- Zhang, Ming and Ronald N. Montaperto. 1999. *A Triad of Another Kind: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London: Macmillan. p.94.
- The Economist. 2001. "America's defense policy." June 2nd-8th. pp.27-30.
- The Economist. 2001. "CHINA, AMERICA AND JAPAN: The uneasy triangle." March 17th. pp.21-26.
- Foreign Policy. 2001. "A Myth Is Born." Vol. 124. May/June. p.15.

## Changing Trilateral Security Relations between the U.S., China, and Japan and the Policy Choice of South Korea: MD Provoked Security Problem in Northeast

Cha Ju-ho

*Lecturer, Japanology Department  
Sookmyung Woman's University*

To understand what is the real problem of MD policy discourse between the U.S., China, and Japan, we must think in historical perspective. Like a roller-coaster, the U.S.-China-Japan trilateral relations in the 20th century has been frequently changed. During Clinton Administration, the U.S.-China relations was termed 'strategic partnership,' but in Bush Administration, it has transformed to 'strategic competitor' relations. Throughout this perio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generally bandwagoned to the U.S. policy to China.

The real goal of MD policy by the U.S. Government is to distribute more money to defense industry(the supporters of Republican Party) and to restrain arising Chinese power. So called the threats of 'Rogue States' like North Korea, Iran, Iraq and the threat of Chinese Missiles are not true. All they do not have the power to hit America. Therefore, MD is unrealistic, not only unhelpful for the U.S. security but also for World Security. And the fact that MD will be deployed in Outer Space make the humankind more vulnerable.

Now the U.S. Government is planning to deploy MD with the help of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In this Process, the U.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make some bias against China, citing Chinese missile threat. It is clear that bandwagoning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U.S policy toward China will make Northeast security environment destabilizing.

For South Korea, the diplomatic option is clear. To avoid unnecessary great conflicts with China, Russia and more importantly with North Korea, we must approach this problem carefully. In some cases we must be prepared to say 'No' to MD net. That means we must keep the 'diplomatic independence' of South Korea.

차주호, 숙명여대 일본학과 강사, 서울 노원구 상계6동 주공 아파트 213동 102호.

Tel: (02)2091-0421, 018-633-0421. E-mail: chajuho1962@yahoo.co.kr